

지역 소식 통

이학수 정읍시장,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총력 주문

이학수 정읍시장이 25일 오전 간부 영상회의에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이 시장은 회의에서 “겨울철은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기 사용으로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화재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모든 공공시설과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형마트, 영화관, 숙박업소, 터미널, 기차역 등 다중이용시설과 전통시장, 공공청사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의 소방시설 작동 여부와 대피 통로 확보 등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내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선정

부안군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국비 약 6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 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주택과 건물 등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 설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에너지원에 따라 설치 비용의 최대 88%를 지원하며, 자부담률은 약 20%로 군민 부담을 최소화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사업 대상 지역은 도서 지역인 위도면을 제외한 12개 읍·면으로 주요 설치 계획은 태양광 발전설비 주택(3kW) 292개소, 태양광 발전설비 건물(10kW 이하) 4개소,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1개소, 태양열 발전설비 주택(13.6㎡) 10개소, 지열 발전설비 주택(17.5kW) 41개소 등이다.

군은 공모 신청을 위해 9월 심층평가를 거쳐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최종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부안=김석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면담 현안사업 건의

권익현 부안군수,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 산업단지 전환 등 핵심사업 논의

권익현 부안군수가 지난 22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부안군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이원택 의원과 김제시 정성주 시장도 함께 참석했다.

권 군수는 새만금 개발 과정에서 부안군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점을 언급하며,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을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새만금 개발이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미래 성장의 중요한 기회로 작용하고 있지만, 부안군은 개발 과정에서 직접적인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며, “7공구를 산업단지로



전환해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군수는 이어, “농생명용지 7공구의 산업용지 전환은 새만금 내 부족한 산업단지를 확충하고, 부안군이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권 군수는 “관광형 노을대교의

4차선 확장’을 통한 서해안권 관광 활성화와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계속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노을대교는 부안과 고창을 연결하는 주요 인프라이자 관광 자원을 활성화할 핵심 축”이라며, “단순히 교통 편의성을 넘어서 서해안 관광벨트 구축과 지역 간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필수 사업으로, 4차선 확장을 통해 물류 이동과 교통 흐름을 더욱 원활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면담은 부안군의 발전을 위한 권 군수의 의지를 국무총리에게 전달하고,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안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가 제29차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에서 제15대 회장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고창 명성 세계 알리기에 최선”

심덕섭 고창군수, 세계유산도시협의회 제15대 회장 선출

심덕섭 고창군수가 제29차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에서 제15대 회장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25일 고창군에 따르면 심 군수는 경남 양산 통도사 해장보각에서 열린 올해 정기회의에서 31개 세계유산 회원도시 만장일치로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회장에 선출돼 1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심 군수는 올해 군청 조직내 세계유산과를 신설하고, 과 내에 고인돌유산팀, 갯벌유산팀, 생물권보전팀 등 유산별로 팀을 신설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또 세계유산을 소재로 한 관광상품(코스)을 개발하여 여행사 상품판매와 스탬프 투어, 수학여행단 유치, 대표축

제 이벤트에 활용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회원 도시들의 현안을 꼼꼼히 살펴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 위상 강화와 우호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문화유산(고인돌)과 자연유산(갯벌)을 동시에 보유한 세계유산도시 고창의 명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한 전국 31개 시·군·구 단체장 협의회로 세계유산의 공동 현안의 능동적 대응과 세계유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2010년 창립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3개 기업, ‘2025 전북도지사 인증상품’ 선정

금계식품 · 마이코 인터내셔널 · 나무숨 등 전통 · 가공식품 · 공산품 부문 우수 제품력 인정 받아

정읍시 소재 3개 기업이 ‘2025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인증상품’으로 선정돼 품질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으며 지역 경제의 자긍심을 높였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영농조합법인 금계식품(대표 임장욱), 마이코 인터내셔널(대표 김수태), 나무숨 주식회사(대표 조동술)로, 각각 전통·가공식품과 공산품 부문에서 우수한 제품력을 인정받았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 중 품질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발굴해 도지사 인증상품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 3개 기업은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경쟁력과 품질을 입증하며 올해 인증상품에 이름을

올렸다.

영농조합법인 금계식품의 ‘생고를 감식조는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41호 임장욱 명인이 당도가 높고 품질이 우수한 먹시감을 3년 이상 숙성·발효시켜 만든 천연 식초다. 초산, 구연산, 사과산 등 유기산이 풍부하고, 화학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아 건강한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마이코 인터내셔널의 ‘가비쌀 현미 누룽지’는 스트레스 완화, 뇌 기능 개선, 혈압 조절 등에 도움을 주는 가바 성분이 풍부한 쌀로 만든 제품이다. 이 누룽지는 정기적인 미생물 검사와 영양 성분 분석으로 품질을 철저히 관리, 건강과 맛을 모두 갖춘 가공식품

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나무숨 주식회사의 ‘나무숨 트리미엄(Tree+Premium) 탈취제’는 적송 소나무에서 추출한 천연 피톤치드 오일을 활용한 친환경 제품이다. 화학제, 인공향 색소가 첨가되지 않아 살균·소독이 필요한 공간은 물론 침소 시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탈취제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인증으로 3개 기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다양한 지원 혜택을 누리게 된다. 전북 우수상품관 입점,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TV 홈쇼핑 진출 등 판로 개척과 홍보 기회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보건소, 겨울철 군민 건강관리 활동 강화 나서

고창군보건소가 겨울철을 맞아 군민 건강관리 활동을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보건소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감염병 예방 방지를 위한 다양한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방지하기 위해 기피제 사용, 긴소매 옷 착용과 야외 활동 후 빠른 목욕을 권장하고, 손 씻기와 물 끓여 마시기 등 노로바이러스 예방 수칙도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면역력이

저하되기 쉬운 임산부에게는 백일해와 독감 예방 접종을 제공하고 영양제를 지원하여 건강 취약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겨울철은 기온 저하로 인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응급처치 교육과 생활 습관 개선 안내도 강화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되는 “자기혈관 숫자알기”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

도록 돕고 있다.

보건소는 또한, 영양 보충식품과 방한용품 지원하며, 방로 건강 상담과 기초 검진을 통해 한층더 나은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마을주치의의 사례를 통해 기초 검사 및 개인별 건강 상담을 진행하고,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구강관리 교육과 한과 대비 건강 관리 수칙을 안내하는 등 겨울철 건강 관리를 위한 보건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민간 투자 활기

정읍시 내장산리조트 관광지가 민간 투자가 활기를 띠며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다.

내장산리조트 관광지는 내장산국립공원과 용산호를 접하고 있어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호남고속도로 내장산IC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접근성도 우수하다. 이처럼 탁월한 입지 조건은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체류형 여가지를 제공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먼저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주)현대에너지는 20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베이커리 카페 건축을 착공했다. 이는 시가 추진 중인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개발에 새로운 동력을 더할 전망이다.

(주)현대에너지는 이외에도 소유 중인 다른 부지에 대한 투자를 내장산리조트 관광지의 조화를 고려해 진행할 계

획이다. 회사 측은 이번 착공이 다른 분양토지 투자자들의 사업 착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장산리조트 관광지에는 이미 (주)대일개발이 운영하는 내장산리조트클럽이 자리 잡고 있으며, 시와 전북자치도가 협력 추진 중인 관광호텔 조성 사업도 진행 중이다. 또한, 2021년 준공된 숙박시설 ‘엘리스케이’는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국내외 건축상을 두 차례 수상하며 전국 각지의 투숙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최근에는 JB금융그룹의 아우렐캠퍼스가 지난해 11월부터 계열사 직원들의 연수를 진행하며, 운동장과 풀빌라 부지 등 복리후생 시설을 조성해 직원과 가족들이 연중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